

<익숙하면서 낯선 풍경..노충현 개인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도시의 메마른 풍경에 개인적 감상을 더한 풍경 연작을 선보여온 화가 노충현이 신작을 들고 찾아왔다.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13일 개막한 개인전 '살풍경(Prosaic Landscape)'에서는 오랫동안 탐구해 온 풍경화 연작 35점을 소개한다.

'몹시 쓸쓸하고 고요한 정경'이라는 사전적 의미대로 '살풍경' 연작에서는 작가가 오랫동안 거닐며 지켜본 한강시민공원의 한적한 풍경을 보여준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작가가 발견한 풍경은 복잡하고 분주한 도심의 그것과는 느낌이 다르다.

작가는 때로는 스산하고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묻어나기도 하는 그곳의 풍경에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더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밤 풍경과 한겨울 눈으로 덮인 풍경, 여름 장마철 풍경은 그의 작품 속에서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낯설다.

앞서 그는 2005년 첫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동명의 연작에서 서울이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의 삶에 미치는 상실의 정서를 풍경화로 보여줬다.

13일 오후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현실 속 풍경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색채나 느낌을 바꿔서 그린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실제 모습은 사라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심상이 그림에 삼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만나는 계절 풍경을 통해 이 곳에 사는 한 사람이 느끼는 정서를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한다"고 했다.

전시는 7월 14일까지. ☎02-735-8449.



편의점2013oil on canvas112 x 145.5 cmCourtesy of the Artist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mong0716@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3-06-13 17:25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